

# “발레리노로 이름 드높여 고향에 기여하고 싶어”

(16) 전남스타 200 선정 발레리노 고준서 씨

미술 전공 누나 권유에 뒤늦게 발레 시작  
완성도 높이기 위해 부족한 부분 보완해  
전국무용경연대회 등 7개 대회서 최고상



립습니다. 키가 좀 작은 것도 부족한 부분  
이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유독 키가 크고 몸  
집이 있는 발레리노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

“어렸을 때부터 발레리노를 꿈꿨던 것은  
아닙니다. 운동을 즐겨하던 제게 미술을 전  
공했던 누나가 전남예고를 추천해 들어간  
것이 계기가 됐습니다. 현재 국립발레단 진  
입을 목표로 노력하고 있지만, 여전히 스트  
레칭이 제대로 안 돼 고민입니다.”  
고준서(20·국민대 무용학과 1년)씨는 발  
레 입문 3년만에 대학에 진학하며 이름을  
알렸다. 발레 입시학원이 없는 목표에 살면  
서 1년간 매일 광주를 오가며, 지난해 광주  
시장애인 한국무용협회 전국무용경연대회 등  
무려 7개 대회에 출전해 최고상 등을 수상  
했다.  
“사실 누나 덕분에 전남예고에 갔지만 처

음에는 발레에 별 관심이 없었어요. 2학년  
때 발레 공연을 보고 발레리노에 매력을 느  
껴 열심히 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쉽잖  
이 연습하고, 매일 학원에 다니느라 학원비,  
교통비 등 부모님께도 부담을 드렸어요.”  
늦게 시작한만큼 반복해서 동작을 익히  
고,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부족한 부분을  
열심히 보완한 덕분에 각종 대회에서 두각  
을 나타냈다.  
하지만 비슷한 연령대의 발레리노는 전  
국의 20~30명. 이들과 경쟁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다. “무용을 늦게 시작하다보니  
다른 친구들보다 몸이 굳어있어서요. 지금  
도 연습하기 전에 하는 스트레칭이 가장 어

습니다. 밤늦게 혼자 연습하면서 힘들어 올  
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한계를 넘어설  
때 웃기도 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매일 7~8시간씩 연습을 거듭하고 있는  
그는 연말쯤 입대할 생각이다. 일찍 군대를  
다녀오고 다시 몸을 만든 뒤 국립발레단 입  
단 시험을 준비할 예정이다.  
“작품을 준비하면서 완벽하게 동작을 익  
혔지만 무대에서 단 한 번의 실수로 그동안  
의 노력이 물거품이 되기도 합니다. 그 때  
문에 무대에 설 때마다 긴장되고, 또 한편  
으로는 준비한 것을 관객과 심사위원들에  
게 보여드릴 수 있다는 생각에 설레기도 합  
니다. 그것이 바로 무용의 매력이기도 하고  
요. 지난해 전남스타 200에 선정되면서부  
터는 의무감도 생겼습니다. 전남도와 도민  
들을 위해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습  
니다. 우선 제 이름을 알릴까 할 것 같고요.  
후배들도 긍정적인 생각으로 자신을 믿고  
반복해서 노력한다면 난관을 이겨낼 수 있  
을 겁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 광산여성새일센터, 경력단절예방 멘토링프로그램 운영



광주광산여성새일하기센터(센터장 김선숙)는 지난 5~9월 경력단절예방사  
업 369멘토링프로그램 ‘어서와~ 왕언니 유튜브는 처음이지?’를 운영했다고 밝혔  
다.  
이 프로그램은 기업 중간관리자, 취업자 및 구직자를 대상으로 스마트 미디어  
의 이해와 미디어 활용교육을 통한 네트워크 기회를 제공하고 일·생활·취업 결  
림들을 해소해 열정과 자존감을 회복하고자 기획했다.  
광주시청자미디어센터와 MOU협약을 체결, 디지털과 모바일에 기반한 전문  
적인 스마트미디어 교육을 통해 일·가정 양립, 경력단절예방, 직장문화개선, 구  
직자, 취업자의 고충 경험 등 다양한 주제를 담은 영상기록물을 제작했다.  
한편, 광산여성새일하기센터는 출산과 육아, 가사 등으로 경력단절된 여성  
에게 취업을 지원하는 직업상담, 직업교육훈련, 인턴십 및 취업 후 사후관리 등  
을 지원하고 있다.  
/전재재 기자 ej6621@kwangju.co.kr

## 영암서 ‘으뜸한우 송아지브랜드’ 육성사업 출범

전남도 특성사업 추진



전남도가 지난 14일 전남 한우의 차별화  
와 수출기반 구축을 위해 ‘전남 으뜸한우  
송아지브랜드’ 영암군 출범식을 영암축협  
가죽경매시장에서 가졌다. ‘전남 으뜸한우  
송아지브랜드 육성사업’은 체계적이고 집  
중적인 한우 개량을 통해 우량 송아지를 생  
산·선발, 전남 한우의 차별화와 수출기반  
구축을 위해 전남도가 전국 최초로 추진한  
사업이다.

며, 내년까지 10개 시·군으로 이를 확대할  
계획이다.  
전남도 브랜드인 ‘전남 으뜸한우송아지’  
는 한국축육개량협회에 등록된 고품 등  
우와 유전능력 상위 30% 이상, 후대도축 성

적기 우수한 개체 중 선형심사 79점 이상인  
암소에서 생산된 송아지를 대상으로 한다.  
이 중 친자확인, 질병 유무 등 종합적인 심  
사를 통해 선발된 송아지에 브랜드명을  
부여한다.  
/윤현석 기자 chadol@

## 한국편집기자협회

창립 56주년 언택트 세미나



한국편집기자협회(회  
장 신인섭 중앙일보 차장  
·사진)는 창립 56주년을  
맞아 18일 오후 2시부터  
“편집을 보는 세가지 시  
선”을 주제로 언택트 창립  
기념 세미나를 개최한다.  
동아일보 취재기자 출신인 백우진 글쟁이  
(주 대표)가 ‘취재기자가 본 편집’, 백건필 아  
이디어설리우 대표가 ‘외부에서 본 편집’,  
동아일보 김남준 부장이 ‘편집기자가 말하  
는 편집’을 주제로 각각 발표하고, 한국편  
집기자협회 유튜브 계정으로 생중계한다.  
/유재만 기자 jkyou@kwangju.co.kr

## 광주 14개 기관, 광주공원 기능 회복 위해 힘 모은다

광주 최초 도심공원인 광주공원의 기능을 되살리고 구도심 일대를 활성화하  
기 위해 주변 14개 기관이 힘을 모으기로 했다.  
광주문화재단·광주향교·성거사·4·19문화원·광주시민회관(도시문화집단CS  
)·임방울국악진흥회·사직문화보존시민모임·광주공원 노인복지관·마을기업 꿈  
꾸는거북이 등 14개 기관은 최근 문화재단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14개 기관은 광주공원 일대 관광 활성화와 프로그램 공동 개발 및 운영, 관광 핵  
심 콘텐츠 및 문화상품 개발, 미디어아트 창의도시 조성을 위한 경관 디자인 개  
선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또한 문화예술 공동 홍보 마케팅, 각종 관광형 일자  
리 창출, 주요 협력방안 논의 및 연계 등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은 비둘기개 많은 곳으로 유명한 광주공원의 비둘기 소리 ‘구구’에  
착안해 지난 9월 9일 진행됐다. 또한 광주공원이 거북이 모양의 지형이라 이름  
붙여진 거북 구(龜) ‘구’의 ‘구’를 상징한 날이기도 하다.  
한편 광주공원은 광주향교, 성거사지오층석탑(보물 제109호), 70~80년대 추  
역의 공간이자 최근 청년창업거점으로 활성화 된 시민회관, 유네스코 미디어아  
트 창의도시 광주플랫폼 등 다양한 역사·문화·관광자원을 갖추고 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 TV프로그램

16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SBS
⑥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광장	00 생활의 발견 스페셜(재) 10 걸어서 세계속으로(재)	00 MBC 뉴스 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⑦	50 인간극장	00 굿모닝 대한민국 라이브 1부	00 광주 MBC 뉴스 투데이 50 생방송 오늘 아침	15 KBC 모닝와이드 35 모닝와이드 3부
⑧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15 굿모닝 대한민국 라이브 2~3부	50 찬란한 내 인생(재)	35 엄마가 바람났다
⑨	3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45 KBS 뉴스		35 930 MBC 뉴스 50 기분 좋은 날	10 좋은아침
⑩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00 기막힌 유산(재) 40 지구촌 뉴스	45 내가 가장 예뻐할 때(재)	00 서욱 국방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⑪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25 이슈 픽 쌤과 함께 스페셜 55 UHD 습터	00 쌤, 마이웨이		
⑫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 12		00 12 MBC 뉴스 20 치차핑핑 55 뽀뽀뽀 친구친구 스페셜	00 SBS 12 뉴스 25 민방 네트워크 뉴스 50 내모세모
⑬	00 KBS 네트워크 특선 백투더뮤직 50 KBS 재난방송센터(재)	20 영성앨범 산(재) 5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재)	25 헬로키즈 신비한 자연교실 2 55 국회 대정부질문 경제 분야	55 닥터 365
⑭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 2 30 국회 대정부질문-경제 분야			00 뉴스브리핑
⑮		00 KBS 뉴스타임 10 자동공부책상 위키 2 30 TV 유치원		
⑯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사사건건	00 TV는 사랑을 싣고(재)	00 기분 좋은 날(재)	00 브라보 마이 라이프(재)
⑰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3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도그래피	00 신비아파트:고스트볼 X의 탄생 30 꿀잼 영화가 좋다 50 통합뉴스룸 ET	00 5 MBC 뉴스 15 액션캠	00 SBS 오뉴스 45 KBC 저녁뉴스
⑱	00 6시 내고향	30 2TV 생생정보	15 오매! 전라도	00 백중원의 골목식당(재)
⑲	00 뉴스7 광주전남 40 온택트 시민토크 코로나 시대를 말하다	50 비밀의 남자	15 찬란한 내 인생 50 MBC 뉴스데스크	00 닥터 365 05 남도에 가요
⑳	30 기막힌 유산	30 TV는 사랑을 싣고		00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55 트루신이 됐다 2 라스트 찬스
㉑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9	30 다시 보는 동백꽃 필 무렵	20 내가 가장 예뻐할 때	
㉒	00 생로병사의 비밀 50 더 라이브	45 박원숙의 같이 삽시다	40 라디오스타 1~2부	35 백중원의 골목식당 1~2부
㉓	3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라인	55 스튜디오 K		
㉔	10 트레킹노트 세상을 걷다	20 스포츠 하이라이프 45 통합뉴스룸 ET(재)	15 출발! 비디오 여행 스페셜	10 나이트라인 40 내고향 전파

## EBS1

05:00 왕초보 영어	12:00 EBS 정오뉴스	18:00 생방송 특목! 보니 하니
05:30 클래스 e	12:10 EBS 비즈니스 리뷰 플러스	19:00 위 베어 베어스 : 곰 버라이어티
06:00 한국기행	12:25 지식채널e	19:30 자이언트 팽TV
06:20 세계테마기행	12:30 클래스 e	19:45 신계속의 맛터사이클 다이어리(재)
07:00 꼬마버스 타요	13:00 EBS 다크프라임	20:35 아주 각별한 기행
07:15 출동! 슈퍼핑크	13:55 EBS 초대석	20:50 세계테마기행 1~2부
07:30 뽀뽀뽀 뽀로로	14:45 세미와 매직큐브	〈아시아 명상기행〉
07:45 최고다! 호기심딱지	15:45 머털도사	-하늘이 쌓은 만리장성 태항산, 호도협)
08:00 당동명 유치원	16:15 최고다! 호기심딱지	21:30 한국기행
08:30 고고다! 우리 동네 공룡	16:30 당동명 유치원(재)	〈야외에서 하룻밤 3부〉
08:45 위인극장 리턴	16:50 해오와 해오	암자에서의 마지막 하룻밤)
09:40 생방송 우리집 유치원	17:00 EBS 뉴스	21:50 EBS 다크프라임
10:30 한국기행(재)	17:20 아웅명명 귀여워2	22:45 극한직업
10:50 최고의 요리비결	17:30 로빈 후드	23:35 EBS 비즈니스 리뷰
11:20 세계테마기행(재)	17:45 히어로 씨클	23:50 클래스 e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9월 16일(음 7월 29일 壬戌) ☎ 010-9790-8237

36년생 어떠한 상황에서도 객관적인 중용의 도를 잃지 말자. 48년생 진보는 없지만 무탈한 하루가 될 것이다. 60년생 파격적인 발전의 행보로 이어지리라. 72년생 가슴에만 묻어 두는 것도 괜찮은 일이다. 84년생 어떠한 형태로든지 폐단으로 작용할 것이니 발본색원 하라. 96년생 행평성을 유지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행운의 숫자 : 40, 77

37년생 치우친다면 설득력을 얻지 못할 수도 있다. 49년생 차분하게 공리해보면 꼭 해결책을 찾게 될 것이다. 61년생 여러 가지 구별이 확인해지리라. 73년생 시기에 따라서 양상이 달라지겠다. 85년생 최근의 것이 가장 유력하다. 97년생 생량하고 순조로운 판세이다. 행운의 숫자 : 37, 80

38년생 밤심하는 순간에 현상이 일어난다. 50년생 처음부터 접하지 않는 것이 낫다. 62년생 숨어 있는 맹점이 노출되겠다. 74년생 표준과 전형에 따르는 것이 무난하겠다. 86년생 변화의 양상이 예측하기 힘들 정도이다. 98년생 경직된 사고는 자기 한계가 될 수도 있다. 행운의 숫자 : 85, 75

39년생 자신이 직접 실행하는 것이 실수를 낳지 않는다. 51년생 부족한 부분이 보이니 반드시 보충해야 할 시기이다. 63년생 매우 허망한 일이 있을 수도. 75년생 화의 운은 쉽게 사라질 수도 있다. 87년생 다시 한번 점검해본다면 새로운 문모가 드러날 것이다. 99년생 하나하나 정리해야 할 국세에 놓여 있다. 행운의 숫자 : 34, 85

40년생 경우에 따라서는 생략할 수도 있다. 52년생 생소한 것에는 조심해야 하느니라. 64년생 아무런 소용이 없을 것이니 뜬 구름 잡지 말고 현실로 돌아오라. 76년생 내적인 실속에 신성 쓰는 것이 바람직하다. 88년생 한 곳에 집중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00년생 금돈도 안팎이 있느니라. 행운의 숫자 : 15, 84

41년생 무형의 가치를 파악할 수 있는 안목이 절실하다. 53년생 점점 더 경색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으니 감안하고 임하라. 65년생 방심하다가가는 급락을 면치 못할 것이다. 77년생 강력한 세력에 휩쓸려 가는 성적이다. 89년생 확실한 자기주관과 결연한 의지가 요망된다. 01년생 불안전했던 요소가 해소 될 수도 있었다. 행운의 숫자 : 43, 74

42년생 노력이 수반 되어야만 기대치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 54년생 전혀 도움이 되지 않으니 빨리 철회할수록 이익이 나리라. 66년생 얽힌 데 풀린 격이 될 수 있으니 조심하자. 78년생 과정은 매우 힘들게 진행 되겠지만 결과는 알찬 것이다. 90년생 응용을 잘 해야 쉽게 타결할 수 있다. 02년생 생량적인 확신은 소모적일 뿐이다. 행운의 숫자 : 48, 66

31년생 다루기 전에는 절대로 발설하지 않는 것이 안전하다. 43년생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다. 55년생 장애물이 있다면 차우고 가는 것이 낫다. 67년생 분수를 지키려면 흥사를 버려줄 수 있다. 79년생 지나치다면 많은 부작용을 초래하게 되리라. 91년생 초기에 내린 판단대로 진행되는 것이 가장 낫다. 행운의 숫자 : 27, 55

32년생 그 무엇보다도 가장 우선 되어야 할 것이 주목하자 44년생 마음먹고 있던 일이 중단 될 수 있다. 56년생 일단 마무리 짓는 것이 나을 것이다. 68년생 회자정리 하는 법이다. 80년생 생활 속에서 익숙해지면 관장을 것이니 다소 불편하더라도 적응해 나가도록 하라. 92년생 도처에 괴로움이 보이나 너무 걱정할 일은 아니다. 행운의 숫자 : 29, 60

33년생 일도양단할 수 있는 처신이 필요하다. 45년생 임시방편적이어서는 아니니라. 57년생 상대에게 끌려 다니지 말고 적극적으로 주도해나가야만 하느니라. 69년생 길인을 만나라라. 81년생 성과가 배가 되리라. 93년생 재만 준비를 해야 하리라. 행운의 숫자 : 33, 51

34년생 사람의 마음이 다 같을 수는 없음이 아니라. 46년생 미처 인식하지 못했던 바를 저나라하게 깨닫게 된다. 58년생 소탐대실 하지 마라. 70년생 새로운 차원을 인식하게 되리라. 82년생 끝내 미련을 떨쳐 버릴 수 없으리라. 94년생 굳이 지름길을 찾지 마라. 행운의 숫자 : 30, 89

35년생 액면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참으로 곤란하다. 47년생 가치적인 것보다 잠재적인 면에 주목해야 할 때다. 59년생 철저하게 살핀다면 방안이 보일 것이다. 71년생 순간에 상황이 뒤바뀔 수도 있다. 83년생 거시적인 관점에서 대국을 살피지 않으면 아니 되겠다. 95년생 허황된 일이나 빨리 포기 할수록 유리하다. 행운의 숫자 : 04, 65